

보컬리스트들의 상황에 따른 무대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조설규*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e-mail:qtangel80@hanmail.net
**e-mail:entheos@korea.com

Theatrical elocution

Sul-Kyu Cho* , Tae-Seon Cho**

*Choongwoon graduate school

**Dept of Broadcasting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 약

무대에서 노래한다는 것은 개인연습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관객과 호흡 할 수 있는 여유나 그날의 날씨, 장비 셋팅, 자신의 컨디션이 주는 요인에 대해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보컬들이 무대에서 노래할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날씨의 변화에 따른 적응법과 무대장치에 따른 적응방법을 연구한다.

1. 서 론

2. 본 론

보컬이 갖는 소리의 능력은 호흡과 발성에서 비롯된다. 호흡량의 조절과 배를 이용한 힘의 조절이 가능하다면 어느 공간에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 줄 수 있는 보컬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적인 발성만으로는 실제의 무대에서 표현 할 수 있는 것이 제한 될 수 있다. 무대는 공간이 주는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해진 무대의 크기와 사운드의 출력 양 또는 관객을 동원 할 수 있는 객석의 수에 따라 보컬들이 알아야하는 제한적인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야외무대는 정해진 공간에서 소리를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변수를 생각해야 한다. 그날의 날씨가 저기압의 흐린 날인지 고기압의 맑은 날인지 보컬의 몸이 느낄 수 있는 체감날씨가 어떠한지는 컨디션 조절의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생각해야 한다. 또 무대에 셋팅 된 장비의 위치는 보컬의 동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리허설을 통해 염두 해 두어야 하며 관객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곡의 선택과 적당한 무대매너도 준비해 두어야 한다.

2.1 날씨변화에 따른 적응

날씨는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 본성은 인간의 심신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것은 날씨에 따라 사람의 몸과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이야기며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날씨는 일반적으로 맑은 날과 흐린 날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고기압과 저기압의 분류를 들 수 있는데 보통 고기압 일 때는 차가운 공기가 무게를 못 이기고 내려오게 되며 그 힘이 고기압을 형성하고 주변에 수분을 흡수하며 맑은 날씨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저기압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압의 변화에 따라 몸의 균형이 변하기 때문에 컨디션을 조절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기압이 낮은 흐린 날은 아무래도 좀 더 활동적인 스트레칭이나 몸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몸과 마음상태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압이 낮은 날은 비가 올 확률이 높고 바람의 이동이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와 바람에 대처 하는 방법 또한 강구해야 한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는데 맞바람이 있다면 당연히 호흡을 하는데 불편하게 되고 힘이 들어가게 된다.

이때는 호흡을 짧게 끊어 마시고 내뿜는 방법으로 노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호흡의 횟수가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목주변이 건조해지는데 이는 사전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것으로 대처해야 한다. 비가 오는 날은 야외공연에 있어서 가장 악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전기가 흐르는 무대장비는 물론이고 몸에 직접적으로 지니고 있는 마이크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도 유명 가수가 감전사고로 공연도중 쓰러진 일이 있었고 본인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한다. 반대로 맑은 날은 흐린 날 보다는 좀 더 가벼운 몸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긴장이 풀려서는 안 된다. 물론 어느 정도의 긴장을 풀면 좀 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발성을 할 수 있지만 과하게 되면 실수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또 하늘이 맑고 태양이 직접적으로 내리 쬐는 날은 직사광선과 자외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다. 온도가 올라가며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고 두성을 내기 위해 머리 쪽으로 힘을 이동 시키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산소 부족으로 머리가 ‘뺨’하는 현상을 느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호흡과 소리의 균형을 잃게 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물론 개인적인 상태나 습관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날씨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무대에서 노래하는 보컬리스트들에게 날씨변화에 신중한 반응은 보이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필수조건이다.

2.2 무대장치에 따른 적용

무대장비에는 음향을 담당하는 대형 스피커와 모니터를 비롯해 모든 소리를 Control 하는 Mixer¹⁾와 조명 등 여러 가지의 장비들이 있다. 대부분의 장비들이 중량감 있고 전기적인 것이어서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또한 습하고 건조한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관리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장비들은 이동시키는 것부터가 큰 일이 되는데 충격에 주의를 해서 다뤄야 하며 계획적인 위치설정으로 한 번에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무대장비를 다루는 일은 엔지니어의 몫만은 아니다. 기본적인 사항과 사용법을 알아야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보컬이나 밴드 인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대장비를 설치하고 본인의 악기를 Setting할 때는 시간적 여유와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꾸며나가야 한다. 무대에서 개인 악기를 제외 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니터 스피커 이다. 모니터스피커는 자신이 다루고 있는 악기나 멤버간의 소리를 전달 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위치는 무엇 보다 중요하며 Rehearsal²⁾때 자기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동선을 파악하며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또 멤버 간의 스피커 위치가 중복되거나 마주하게 되면 Howling³⁾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 모니터 스피커의 위치를 알고 어느 정도의 볼륨을 맞추었으면 그 다음에는 동선을 파악해야 한다. 모니터스피커에 맞춰 놓은 본인의 소리와 밴드의 악기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장소에 표시를 해두고 그곳을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연 도중 흥분을 하게 되면 무대를 넓게 쓰게 되고 모니터스피커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모니터스피커의 소리가 안 들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악기 소리는 물론 본인의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소리의 변화에 당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리허설을 할 때 일정수준의 소리가 나질 않으면 심적으로 조금하게 되고 노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밴드는 악기가 많은 만큼 Effector⁴⁾의 양도 많다. 특히나 기타는 많은 양의 Effector를 사용해야 하는데 양이 많을수록 동선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 동선은 기타 연주자만이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아니라 보컬 또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보컬은 밴드의 얼굴이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 보다 활동량이 많고 움직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Effector의 선들이나 그 자체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타연주자는 최대한 공간을 줄여야 하며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 또한 정확히 체크해봐야 할 사항이다.

또 마이크는 무선 마이크와 유선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에 따라 보컬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나 동선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가끔 유선 마이크를 쓰는 보컬이 선의 길이를 확인 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며 무선 마이크의 전원을 켜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조금의 관심이 모두에게 중요한 공연을 망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공연을 앞두고 실제처럼 하는 예행 연습.

3) 어떤 장치의 출력이 입력장치로 들어가 증폭되어 다시 출력 되는 일이 반복되는 현상.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함.

4) 영상·음성신호 등을 전기신호로 바꿔 다양한 효과를 연출하는 장치.

1) 방송국이나 음악 녹음실 따위에서 신호를 혼합하고 조절하는 장치.

무대장치에는 사운드뿐만 아니라 분위기를 고려한 화려한 조명과 특수효과를 빼 놓을 수 없다. 그만큼 화려한 조명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며 조명이 가장 잘 들어오는 곳에 포인트를 둘 줄 알아야 한다. 보컬은 조명에 따라 보여 지는 모습을 미리 기획하고 연출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효과는 폭죽, 스모그, 불기둥 등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대학교 축제나 행사 공연에서는 빠지지 않는 장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되고 표현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공연 도중 본인이 모르는 특수효과가 나오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사전에 체크해야 한다.

3. 결 론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타고난 능력과 지속적인 연습 없이는 불가능 하다. 어느 상황에 놓이던 간에 보컬이 자신의 무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은 것이 보컬의 현 위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열악한 상황에 무대가 대부분인 것도 사실이며 음악중심의 방송무대 또한 보컬을 위한 사운드위주의 시스템 보다는 보여 지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소리에 예민한 보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에 따른 변화나 무대설치에 따른 상황에도 적응을 해야 하며 자신의 소리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중음악을 하는 보컬들은 꼭 알아두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기에 더욱더 노력해야 하며 항상 상황에 맞게 대처가 가능하도록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 1) 조태선 2005 대중가요의 호흡과 발성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 2) 세스릭스 2000 스타처럼 노래하세요 상지원
- 3) 오한승 2001 나도 가수가 될 수 있다 김영사
- 4) 브라이언 룡 허스트
1999 대중음악과 사회 예영 커뮤니케이션
- 5) 강인중 1999 대중음악 볼륨을 낮춰라 낮은 울타리
- 6) 김지평 2000 한국가요 정신사 아름출판사
- 7) 선성원 1993 8군쇼에서 랩까지 아름
- 8) 후쿠시에이 2002 나도 명가수 아름